

AUTHOR 라준석

TITLE 갈뱅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

IN 로고스

vol. 26 (1990): 201-220

론과 언더우드 등의 기독교 정체성을 위한 신용어 ‘틴쥬’ 사용론은 계일에 의해 변증법적인 지양을 이룬다. 1900년대 초부터 계일을 비롯하여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표기하는 신학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신용어’인 ‘하나님’으로서의 ‘하느님’을 새로이 창조하였다. 따라서 1906년 이후에 완전히 고정되어 30년간 사용된 ‘하느님’은, 19세기의 ‘하느님’이 기독교의 세례(계일의 신학화 작업)를 받아 거듭난 새용어였다. 이 ‘하느님’은 가톨릭이 중국에서 창조하여 한국에서 그대로 수용한 ‘天主’보다 순 한글어라는 점에서 훨씬 토착적이고, ‘최고신’ 개념을 넘어 유일성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다 잘 유지해 주는 훌륭한 용어라 하겠다.

오늘날 신 용어 문제는 과거(1895-1904) 교회연합과 토론의 지혜를 따라 10여년간(1977-1990) ‘하나님’과 ‘하느님’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약 100년 전의 신앙의 선배들은 10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활발한 신학적 토론을 통해 ‘틴쥬’를 버리고 우리의 ‘하느님’을 성경의 ‘하느님’으로 통일시켰다. 이제 우리도 10여년간의 공존기를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 단순히 국어학적인 차원에서 옮기기 때문에, 혹은 교회연합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 ‘하느님’만을 고집하는 것은 ‘하느님’ 용어 역사에서 19세기의 논의 차원으로 되돌아가는 시대착오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⁵⁶⁾ 본 소고는 <새번역 성경전서>의 출간을 앞두고 다시 제기되는 용어문제에 있어서 ‘하느님’과 ‘천주’를 지양한 진보적인 용어인 ‘하나님’으로 통일되는 논의의 출발점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쓰여졌다.⁵⁷⁾

57) 그러나 필자는 14년간의 ‘하느님’과 ‘하나님’의 공존기가 무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약 신명의 두 전통인 אל 과 אלהים 을 전자(EI)는 ‘하느님’으로 후자(Elohim)는 ‘하나님’으로 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약은 가나안의 主神인 אל 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 용어에 이스라엘 신앙으로 세례를 준 אלהים 도 동시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갈뱅의 ‘하나님의 형상’이해

리준석(신대원 3년)

차 례

- I. 여는 글
 - II.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대한 여러 견해들
 - 1. 초대교회
 - 2. 아우구스티누스
 - 3. 중세교회
 - 4. 루터
 - 5. 바르트와 브루너
 - III.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인간
 - IV.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형상”
 - 1. 전적 타락
 - 2.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 1) 종교의 씨 (Semen Religionis)
 - 2) 양심과 자연법
 - V.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 1.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 2.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 VI. 맺는 글
- 참고문헌

I. 여는 글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기독교 인간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데¹⁾, 인간론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 문제는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는데,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신학적 토의에 있어서 중심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 2) 타락한 후에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가?
- 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인가?
- 4)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안에서 어떻게 재창조되는가?

제2장에서 고찰하겠지만 역사상 수많은 견해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시되었다. 그런데 역사상 다른 어느 신학자도 꺄뻑만큼 성경주석의 능력과 더불어 명확하고 논리적인 사고력, 문학적 표현력, 목회적 관심 등을 끌고루 갖추고 있지는 못했다.²⁾ 꺄뻑의 신학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저서는 그의 <기독교 강요>일 것이다. 꺄뻑의 <기독교강요>는 완성된 부족들을 알맞게 조립해 둔 기계와 같은 통일성이 아니라, 한 폭의 위대한 초상화가 주는 듯한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³⁾ 본 글에

1)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II, 서울: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P.55

2) John H. Leit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황승룡, 이 용원 역, 개혁교회와 신학,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9), p.136

3) 앞의 책, p.135

서는 <기독교 강요>와 ‘성서주석’을 중심으로 꺄뻑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고찰하려고 한다.

II. “하나님의 형상” 이해에 대한 여러 견해들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만큼 중요한 토의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는 아마 없을 것이다.⁴⁾ 모든 견해들을 상론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본 글의 의도는 꺄뻑의 주장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1.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회랍사상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영혼에서 발견하였다. 그러나 터툴리안, 락탄티우스와 같은 라틴 교부들은 인간의 육체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결부시켰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과 “모양(similitudo)”이 구분되었으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상실하였으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의지의 자유와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었다.⁵⁾

4) 김균진, 앞의 책, p.55

5) 김균진, 앞의 책, pp.56-57

2.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그의 견해에 의하면 타락이전의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속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소위 말하는 “본래적의”(iustitia originalis)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으며, 본래적의는 상실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상실되었으나 “형상”은 상실되지 않았다. 타락한 인간도 타락 이전의 인간과 같이 이성(ratio)과 오성(intellectus)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그의 이성과 오성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⁶⁾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본성(natura)안에 있다.”⁷⁾ 물론 인간은 자신의 본성 속에 있는 능력만을 가지고 신앙과 사랑을 소유할 수 없다. 신앙과 사랑을 얻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⁸⁾

3. 중세교회

중세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에 의존하고 있다.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여러신학자들과 같이 형상(imago)과 모양(similitudo)을 구분한다. 모양은 인간이 그의 타락과 함께 잃어버린 본래적의를 뜻한다면, 형상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도 없어지지 않은 인간 본연의 것, 다시 말하여 인간의 이성, 의지의 자유, 동

6) Augustin, Conf. X .32, 김균진, 앞의 책, p.58 재인용

7) Augustin, De praed, santa, z.u., 김균진, 앞의 책, p.58, 재인용

8) 김균진, 앞의 책, pp.57-58

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뜻한다.”⁹⁾

로마카톨릭 교회의 공적 해석에 의하면,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부터 두 가지 은사를 받았다. 자연은사(donum natura)와 초자연은사(donum superadditum)이다. 자연은사에 는 이성, 양심, 판단력, 정의감, 용기, 자제심 등이 있다. 초자연 은사에는 신을 아는 지식이나 신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힘과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파괴되고 잃어버린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뿐이었다. 인간에게는 그가 타락한 후에도 자연은사는 그대로 남아있다.¹⁰⁾ 로마카톨릭의 이러한 해석은 세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 즉 i) 낙관적 인간관, ii) 자연신학의 긍정, iii) 공적사상의 축진이 그것이다.¹¹⁾

4. 루터

루터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중세교회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주장한다. 그의 입장에 의하면 i) 형상과 모양을 구분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ii)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어떤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다. iii) 본래적의는 형상과 구분될 수 없다. 양자는 같은 것이다. iv) 인간의 타락과 함께 본래적의는 상실되었다. 중세 신학이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하였던 자유의지를 인간은 더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¹²⁾ “인류는 온통 죄덩어리이다. (massa perditionis)¹³⁾ 모든 종자는 죄로 가득차 있다. 그의 본

9) 김균진, 앞의 책, p.58

10)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p.54

11) 앞의 책, pp.54-55

12) 김균진, 앞의 책, p.59

13) Weimar전집, 1427; 2, 526

Erlangen전집, 28, 206

이종성, 앞의 책, p.55 재인용

질은 정욕으로 가득차 있다.¹⁴⁾ 인간의 본질은 악하게 물들어 버린 본성이요 부패한 본성이다”¹⁵⁾라고 루터는 말한다.

5 바르트와 브루너

20세기의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브루너와 바르트의 유명한 <Nein> 논쟁을 알고 있다.¹⁶⁾ 브루너는 형식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내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구분한다. 내용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상실되었으나, 형식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르트는 형식적인 형상과 내용적인 형상의 구분을 반대한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재유비”(analogia entis)로 이해하지 않고, “관계유비”(analogia relationis)로 이해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으로 계시며, 세 인격은 상호간의 관계속에 있다. 이와같이 인간도 이웃과의 관계속에 있도록 창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성의 이 기본적 형식은 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상실되지 않았다. 달리 말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¹⁷⁾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제 III장부터는 갈뱅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4) Weimar전집, 1, 427 ; 2, 412f

이종성, 앞의 책, p.55 재인용

15) Erlangen전집, 7, 289 ; 9, 234 ; 15, 187 ; 20, 155

이종성, 앞의 책, p.55 재인용

16) 1934년 브루너의 <자연과 은총(Natur and Gnade)>이라는 작은 책이 출판되자 뜻밖에도 갈뱅의 진실한 해석자라고 자처하던 바르트와 브루너 사이에 일대 논쟁이 벌어졌다. 그것은 브루너의 <자연과 은총>에 대해서 바르트가 <아니오(Nein)>이라는 제목으로 반대를 선언한데서 시작되었다.

III.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인간

갈뱅은 인간창조에 관해서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¹⁸⁾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영혼(soul)과 육체(body)로 구성되었는데¹⁹⁾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영혼에 자리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의 본래의 죄소가 영혼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²⁰⁾

그런데 타락이전의 인간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상태 그대로 었다.²¹⁾

창세기 주석에 나타난 갈뱅의 개념정의와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갈뱅은 다른 사람들이 형상과 모양으로 구분하는데 반대하면서 이 두 용어는 다만 동일한 의미를 서로 다르게 표현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모양(μοῦνος, ομοιωσις, similitudo)이라는 단어는 단지 “형상”(εἰκων, imago)의 뜻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의미를 두 개의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은 히브

→ 이것이 바르트와 브루너 사이에 일어났던 유명한 <Nein>논쟁이다.

17) 김균진, 앞의 책, p.62

18) 기독교강요, I.15.1

19) 기독교강요, I.15.2

20) 기독교강요, I.15.2

21) 이종성, 갈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p.115

리어 문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복법칙’일 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²²⁾

<기독교 강요>에서의 해석도 창세기 주석에서의 해석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두 말의 차이점을 까닭없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모양’이라는 말은 설명을 위해서 첨가된 것일뿐 그 두 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첫째, 말을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어서 그들은 한 가지 일을 두 번 연거푸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둘째, 이 문제 자체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까닭에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다. 따라서 이 두 말을 더욱 난해하게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²³⁾

토렌스는 깔뱅이 반사의 개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⁴⁾ <기독교 강요>에 보면 ‘형상’이라는 말은 “거울에 비치는 형상, 일종의 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⁵⁾ 모든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비추는 거울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말로 그 안에서 충만히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 주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는가? 여기에 대하여 깔뱅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22) 칼빈, 창세기 주석, I : 26

23) 기독교강요, I.15.3

24) T.F.Torrance, Calvin's Doctrin of Man, (London : Lutterworth, 1952), p.36

25) 기독교강요, II.12.6

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에서 그 탁월함이 방출됨으로 드러난다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라는 것이 깔뱅의 주장이다.²⁶⁾ 그러나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게 되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모두 소멸되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가? 만약 남아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형태로 남아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고찰해 보자.

IV. 인간의 전적타락과 “하나님의 형상”

깔뱅의 타락의 교리에서 우리는 난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들을 그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편에서는, 인간의 전적타락과 그에 따른 본성의 부패에 관한 교리를 주장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잔여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깔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사를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으로 나누어 설명한다.²⁷⁾ 지식에 관해서도 두 차원으로 대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천상적인 지식에 관해서는 자연상태의 이성 전혀 식별할 수 없는 맹목이지만, 지상적인 것에 관해서는 죄로 인하여 영혼의 기능이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찬

26) T.F.Torrance, 앞의 책, p.53

27) 기독교강요, II.2.13

양할 만한 빛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1천 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간 정신은 무지하다. 그러나 반면에 지상적인 것에 관한 즉, 세상정치, 가정생활, 기계기술 및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⁸⁾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전적타락과 하나님의 형상의 잔여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1. 전적 타락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만'이 모든 악의 원인의 시초였다고 생각하였다. 꺾은 타락의 제일원인은 '불신앙'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아담의 이와 같은 범죄가 그의 후손 즉 온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꺾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성, 양심, 의지, 육체를 포함한 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인간이 학문과 예술을 할 수 없으며,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영위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전적타락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인간의 전적타락을 말한다.²⁹⁾

꺾은 타락의 정도와 부패성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영향은 인간본성의 전 부분에 파급되었다고 한다.

“인간의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아서 한 부분도 죄가 없는 곳이 없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로 여겨지는 것이다.”³¹⁾

28) T.F. Torrance, 앞의 책, p.116

29) 기독교강요, II.2.13~17

30) 이형기, 기독교강요 요약,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0), p.170

31) 기독교강요, I.1.8

원죄의 결과는 “단순한 의로움의 결여뿐만 아니라 악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능력과 세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³²⁾ 꺾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람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가령 완전히 없어지고 파괴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너무나도 부패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의 기형물 밖에 없다”고 말한다.³³⁾ 즉, “성령의 충동없이 선을 열망할 수도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본성의 상태이다.”³⁴⁾ 인간 본성 타락의 전체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2.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꺾은 죄로 인한 부패가 인간성 전체를 오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된 성품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전도되고 타락한 본성 중에는 아직도 약간의 불꽃이 깜빡이고 있어 인간에게 이해력을 제공하는 이성적 본질이 있음을 드러낸다.”³⁵⁾ 그것은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Semen Religionis)’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주입되어 있다는 것과 둘째로, 선악의 구별이 그들 ‘양심’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³⁶⁾ 즉, ‘종교의 씨’와 ‘양심’이 그것이다.

32) 기독교강요, II.2.14

33) 기독교강요

, I.15.4

34) 기독교강요

, II.2.26

35) 기독교강요

, II.2.21

36) 칼빈, 요한복음주석, 1:5

1) 종교의 씨(Semen Religionis)

깁뎁은 타락한 인간에서 종교적 성향을 찾아볼 수 있음을 시인하며 이것에 의하여 신을 인식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종교적 욕망과 행위가 표출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의 씨'가 남아있어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가장 악한 열매를 맺을 정도로 부패하여 결국 인간정신으로는 이상숭배와 각종 미신의 원천으로 전도될 뿐이다.³⁷⁾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깁뎁은 자연신학을 거부한다. 즉 깁뎁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현존이 전적으로 결핍해 있다고 한다.³⁸⁾

쉴라이어마허의 "절대의존의 감정"이라든가 루돌프오토(Rudolf Otto)의 "피조자 감정"등을 우리는 여러번 들어왔다. 라인홀드제베르그(R. Seeberg)에 의하면 쉴라이어마허와 오토의 이러한 사상은 깁뎁의 종교성과 같은것이라고 한다.³⁹⁾

2) 양심과 자연법

깁뎁은 양심을 타락한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남은 흔적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그 본질과 기능을 규명하고자 한다. 루터가 양심을 '자연법의 소리'(The Voice of the Law)라고 정의한 것처럼 깁뎁도 양심을 "그 안에서 들려주는 자연법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록되고 동시에 새겨져 있는 법"으로 규정한다.⁴⁰⁾

37) 기독교강요, II.2.19

38) 이형기, 칼의 책, p.109

39) 이종성, 칼빈, pp.83~84

40) 칼빈, 요한복음주석, 1:5

깁뎁은 양심을 여러가지 말로 표현한다. 그것은 "선악에 관한 지식"이라든가, "정의와 방정의 개념인데 이것을 회랍어로는 *προληψεις*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또한 "의와 불의를, 고상한 것과 천한 것을 판단하는 특징과 힘"이라고도 불렀다.⁴¹⁾

양심의 책망과 고발의 기능에 대해서 깁뎁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책임을 신의 섭리에 전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양심이 그 속에서 책망하기 때문이다"⁴²⁾라고 한다. 그러므로 깁뎁은 자연을 이용하여 양심은 '천인의 증거자'라고 기술한다.⁴³⁾ 즉 양심은 자연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자요 감독자로서 '내적 규범'의 역할을 수행하며 율법과 직면할 때는 그것에 비추어진 참 모습을 발견케 하는 '인식의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깁뎁은 양심의 증거를 과신하는 주장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그 양심이 온전한 지식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양심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 그 자체로는 선악을 판별하는데 있어서는 온전치 못하며 더우기 그것의 추구는 자연인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⁴⁴⁾

깁뎁은 자연법에 대해서 "정의와 불의를 충분히 구별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무지로 인하여 자신의 악행을 핑계치 못하게 하는 양심적 이해"라고 정의한다.⁴⁵⁾ 깁뎁은 양심과 자연법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깁뎁은 스콜라주의자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자연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설을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법은 다만 행위의 올바른 기준을 사람들에게 충분

41) 기독교강요, II.2.24

42) 기독교강요, II.17.6

43) 기독교강요, III.19.15

44) 한국일, 칼빈의 인간론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장로회신학대학, 1987), p.98

45) 기독교강요, II.2.22

히 가르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다.⁴⁶⁾ 갈뱅이 말하고 있는 양심내지는 자연법은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도덕능력이다.

그렇다면 일그러지고 부패한 인간본성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능력은 인간 안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V.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발생되어진 대표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과 본성의 부패라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역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갈뱅의 구원론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모든 예배는 아무유익이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구약성경까지도 중보자를 떠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말한다.⁴⁷⁾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46) 기독교강요, II.2.22

47) 이형기, 앞의 책, p.187

다고 하는 것은 갈뱅의 용어로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⁴⁸⁾

갈뱅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mediator), 우리의 구속주(redeemer), 우리의 화목주(reconciliator), 그리고 우리의 구주(savior)라고 부르며, 아울러 갈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한다.

1.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갈뱅의 기독교론의 중요한 주제이다. 갈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그 형상과 같게 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회복되어 참된 경건, 의, 순결, 지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⁴⁹⁾

갈뱅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발견되는 표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갈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계시(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로서 이해한다. 갈뱅에 따르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본질에 있어서 알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능력들—지혜, 의, 생명, 능력, 선, 자비...등—은 그의 창조 작품안에 표현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위에 비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멀리 숨어 계실 것이다. 그러

48) 칼빈, 로마서 주석, 6:11

49) 기독교강요, I.15.3

므로 아버지께서는 계시하시려는 모든 것을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은혜를 전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진정한 형상을 표현하게 하셨다”(히 1:3 참조)⁵⁰⁾ 또한 “더우기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며, 의도 없고, 생명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안에 소유하신다고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이 확실하다.”⁵¹⁾ 그는 골로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육안으로도 볼 수 없고 인간이해로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계시되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와 선, 지혜, 능력, 즉 그 자신 전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이다.”⁵²⁾

이처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를 떠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칼뱅은 “우리의 소생과 구원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복구다”라고 말한다.⁵³⁾ 한 “이것이 중생의 목적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안에 새롭게 형성하시

50) 기독교강요, III.2.1

51) 기독교강요, I.13.13

52) 칼빈, 골로새서 주석, 1:15

53) 기독교강요, I.15.4

는 것이다.”⁵⁴⁾라고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시작되며, 그것은 몸과 영혼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타락으로 인한 부패가 인간의 전존재를 오염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또한 인간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흥미있는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 곧 아담의 모습을 뒤집어 회복한 상태라고 하는 점이다.⁵⁵⁾

칼뱅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즉 신앙의 발생과정에서 두 가지 요인이 필연적으로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즉 참된 신앙은 i) 성령에 의해서, ii) 성경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주는 끈”이며, 또한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어주는 열쇠이며 그의 조명은 우리 정신의 빛”이라고 말한다.⁵⁶⁾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인간과 연합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신비이다. 바로 이 신비를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에 따라서 인간 영혼의 기능(지성과 의지)이 회복되며, 또한 양심도 회복되게 된다. 인간의 지성은 성령의 빛을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맛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되지 않는한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끌리게 될 때는 정신과 마음이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여 높임을 받게되는 것이다.”⁵⁷⁾ 칼뱅은 또한 새로이 태어난 인간의 의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인간의 의지가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부패와 타락이

54) 기독교강요, I.15.4

55) 이형기, 앞의 책, p.169

56) 기독교강요, III.1.4

57) 기독교강요, III.2.34

교정되어서 이제는 의의 참 규범을 향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⁵⁸⁾ 또한 갈뱅은 양심의 회복된 상태를 ‘양심의 자유로운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부분적으로 택함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재생된 것으로 보이나 그 완전한 영광을 얻는 것은 하늘에서 될 것이라고 갈뱅은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성의 완전한 탁월성으로 이것은 타락이 전에는 아담 안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후에는 부패하여 거의 지워졌기 때문에, 파멸 후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혼란스럽고 이지러지고 오염된 것뿐이다. 이것은 지금 부분적으로는 피택자들에게서 보게 되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에게서만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하늘에서 완전한 광채를 발하게 될 것이다.”⁵⁹⁾

IV. 맺는글

이상에서 우리는 갈뱅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고찰해 보았다. 갈뱅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이지러졌다. 인간은 구원의 가능성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나, 타락한 인간본성 안에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남아

58) 기독교강요, II.2.15

59) 기독교강요, I.15.3

있다. 그것은 ‘종교의 씨’와 ‘양심’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부패한 본성에 속하는 것이므로, 인간은 구원을 얻을 가능성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것은 구원으로 나타나며, 궁극적인 회복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갈뱅의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이해는 그의 신학 전체가 그렇듯이 철저히 성경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형상’ 이해는 갈뱅의 인간이해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창조론, 죄론, 구원론, 성령론 등 그의 신학체계 전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갈뱅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명확하게 보이는 설명이 항상 올바른 해석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때, 그의 이러한 신학방법론은 우리들에 의해서도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종흠,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공역, 기독교강요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0

창세기 주석

요한복음주석

로마서 주석

골로새서 주석

- Torrance, T. F, Calvin's Doctrine of Man
London : Lutterworth, 1952)
- Kuyper, A, Calvinism, 박영남 역
칼빈주의, 서울 : 세종문화사, 1985
- Niesel, Wilhelm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9
- 이종성, 신학적 인간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9
칼빈,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8
-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서울 :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4
기독교강요 요약,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0
- 송기득, 인간,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87
- 김근진, 기독교조직신학II,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 복음주의 신학총서, 1984
- Leith, J. 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황승룡, 이용원 역, 개혁교회와 신학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9
- 한국일, "칼빈의 인간론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 1989
- 김경수,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인간영혼에 대한 신학적 인간학적 교찰" 석사학위논문,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 1988.
- Randall C. Zachman, Jesus Christ as the Ima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Calvin Theological Journal, pp.45-62

Heidegger 思想과 解釋學的 神學

천 병석(신학대학원 신학과 1년)

차례

- I. 序 言
- II. 解釋學史에서의 Heidegger位置
 - 1) D.F.Schleiermacher의 心理學的 解釋學
 - 2) W.Dilthey의 삶-哲學的 解釋學
 - 3) M.Heidegger의 存在論的 解釋學
- III. Heidegger思想의 解釋學的 局面
 - 1) 理解
 - 2) 言語
 - 3) 存在
- IV. 神學的 解釋學的 Heidegger 受容
 - 1) R.Bultmann의 實存論的 神學
 - 2) E.Fuchs와 G.Ebeling의 言語事件的 神學
 - 3) H.Ott의 存在論的 神學
- V. 結 語
參考圖書